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과의 관계

장정백·이미나^{*†}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 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Relation between the Positive Psychology of Would-be Child Teachers and Leadership

Jang, Jeong Baek · Lee, Mi N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onnam Provincial College, Jeonnam, Kore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Health College, Gwangju,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is looking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positive psychology of would-be child teachers and leadership and that's influence. The researchers examined positive psychology and leadership with 330 would-be teachers(13 boys, 317 girls) located in Gwang-Ju and the Jeonnam Region.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would-be teachers. The collected data analyzed the positive psychology of would-be teachers and leaders, including sub-factors for mean(M), standard deviation(SD) and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ccording to subject for inquiry. Then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WIN 17.0 for checking the effects of the would-be child teachers's positive psychology with their leadership skill was us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that the positive psychology of would-be child teachers and leadership of the product-moment correlated in all areas. Especially the most influence on positive psychology is the ability of human relationship among leadership sub-variables, and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y and leadership are very important for making positive changes in society.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for more educational sponsorship regarding positive psychology and leadership for would-be child teachers.

Key words: would-be child teacher, positive psychology, leadership

I. 서론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Hagger와 Malmberg(2011)은 21세기의 교사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

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를 교육할 때 동기나 목적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하며 이

접수일: 2012년 11월 7일 심사일: 201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3일

[†]Corresponding Author: Lee, Mi Na Tel: 82-62-575-4780

e-mail: lmn4780@naver.com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점차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객관적인 생활조건이 나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우울이나 정신질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리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와 미래지향적인 명제를 던져주는 것으로 긍정심리학의 탄생은 1998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회장이었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의 연설로부터 보고 있다(Woo 2010). 심리학의 주요과제는 정신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풍요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Jo 2010),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심리학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어두운 측면만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 전락하게 되었다(Go 2010).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해 왔던 것에 반성으로 1998년 당시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Seligman은 인간의 강점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보다 긍정적인 상태에서 초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Csikszentmihalyi & Seligman 2000; Nam 2007).

Seligman은 인간의 긍정적이고 주관적 경험과 긍정적인 개인특성, 긍정적인 감정 등은 정신병리를 예방하며 행복감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긍정심리학이라 정의하였다.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의 기초로 생물적, 신경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임상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과 같은 인접 과학과 지식을 포함하였으며,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 희망, 창의성, 기쁨, 책임감과 같은 긍정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Lee 2008). 특히, 인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행복감 속에서 성찰과 자기

실현의 삶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는 첫째, 긍정적 상태(Positive states)로 행복감, 만족감, 낙관성, 몰입, 절정 등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태에 대한 구성 요소와 이것이 삶에 미치는 효과 증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둘째, 긍정적인 특질(Positive traits)로 긍정심리학의 핵심인 강점과 미덕, 지능과 운동성 같은 개인의 '능력'까지 포함되며, 셋째, 긍정적인 제도(positive institutions)로 조직과 구성원의 행복,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제도라 하였다(Csikszentmihalyi & Seligman 2000; Seligman 2009). 특히,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심리와 긍정적 심리를 연구하는 논문의 비율은 17:1이라 하였다(Macleod 2000). 하지만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감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다면 개인의 인지, 정서적인 특성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기존의 병리적인 측면을 집중하여 연구해 왔던 것과는 달리 긍정심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 만족, 리더십 등 긍정적인 경험을 재조명하였다. 최근, 긍정심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적응적 측면을 연구의 주요 범주로 넣어야 한다고 하여 정신병리를 개인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화한다는 또 다른 치료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 Seligman 2000).

또한, 리더는 조직이나 집단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비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집단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새로운 리더의 개념으로 정교화 되어,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정의적 측면의 상승을 통해 집단과 개인의 효과성을 고려한 리더십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리더십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unenburg & Ornstein 2000). 리더십 구성요소로, 목표달성능력, 재창조능력, 통솔력, 인간관계능력으로 구분하였다(Jung et al. 2003). 첫째 목표달성 능력이란 자신이 정한 목표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즉, 효과적인 리더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조용히, 끈기와 일관성 있게 노력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목표

달성을 해낸다. 둘째, 재창조 능력으로 자기 경험과 미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을 확산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현실을 뛰어 넘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통솔력으로 즉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판단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Lee 2011). 넷째 인간관계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조직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하게 하는 기술로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능력과 판단력으로 리더에게 있어 조직 구성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라 하였다(Um 2007).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은 비전과 판단력으로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나아갈 방향, 추구할 가치 등 사람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리더는 어떤 방향, 목표, 가치를 향할지를 알거나 결정해야 자신과 타인도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판단력에 있어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나 열망, 욕심 및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Kim 2009). 리더십은 특징인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며 기술이다. 이는 리더 자신이 분명한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조직을 이끌어갈 방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다가서야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 할 수 있다. 인간 본성을 통찰하고 관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야 할 임무가 오늘날의 리더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Woo 2010). 특히, 대학생은 독립된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건강한 심신과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지닌다. 각 시기에 따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기 발달과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즉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긍정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

초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리더십을 갖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는 방법으로 설계해 가는 출발점이며 대학생의 발달과정과제로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현재 리더십을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혹은 생활 기술(life skills)이라 부르며 리더십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전과 시행착오의 기회가 많은 대학생에게 리더십의 습득은 더욱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지만 대학생 시기에 가지게 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Kim et al. 2011). 우리나라 현실은 대학입학 후 비로소 자신의 가치관, 정체감과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증가로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미국의 대학생들보다 낮다고 보고되었다(Cha 2004). 이는 획일적이고 개개인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생들의 긍정심리는 곧 삶의 질과 연결되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활과 이후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예비유아교사에게 사회현장에서 필요한 긍정심리와 리더십 관계를 알아봄으로 심리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는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에 소재한 3년제와 4년제에 재학중인 유아교육과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예비유아교사 355명으로 각 대학에서 임의 표집 한 자료 총 355명 중 본 연구에 분석한 대상은 330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Background variables	Division	Person(N)	Percentage(%)
Grade	Grade 1	45	13.6
	Grade 2	115	34.8
	Grade 3	90	27.4
	Grade 4	80	24.2
Gender	Male	13	3.9
	Female	317	96.1
Practice	Something (kindergarten)	181	54.8
	None	149	45.2
	University areas	Gwang-Ju	245
	Jeonnam	85	25.8
Total		330	100.0

본 연구의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는 각 대학교 6개로 무선표집 선정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 수는 1학년 45명(13.6%), 2학년 115명(34.8%), 3학년 90명(27.4%), 4학년 80명(24.2%)이며, 성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 수는 남학생 13명(3.9%), 여학생 317명(96.1%)이었으며, 실습여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 수는 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81명(54.8%),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49명(45.2%)이며 지역에 따른 구분에서 광주지역 245명(74.2%)과 전남지역은 85명(25.8%)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

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긍정심리 검사도구와 리더십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1) 긍정심리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7)이 사용한 기존의 척도들을 수집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는 특성희망 9문항, 성향적 낙관주의 7문항, 감사성향 6문항, 열정 8문항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Likert 5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30점-150점이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Ch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특성희망 .72, 성향적 낙관주의 .77, 감사성향 .86, 열정 .80로 전체는 .79로 나타났다.

Table 2. The composition of measure of positive psychology

Sub-areas	Question numbers	Questions	Credibility
Feeling of hope	1,3,8,15*,17,21,22*,23*,29	9	.72
A propensity toward optimism	5,7*,11,12,13,19,25	7	.77
A propensity toward being thankful	2,6,10*,14,18,27	6	.86
Passion	4,9,16,20,24,26,28,30	8	.80
Total		30	.79

*Inversion questions

2) 리더십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한국교원개발원(Jung et al. 2003)에 개발한 리더십(지도력)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5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는 목표달성 능력 10문항, 재창조능력 10문항, 통솔력 10문항, 인간관계 능력 10문항 및 목적의식 10문항 등 5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Likert 5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50-250점이다. 점수가 낮은 경우 리더십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Ch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목표달성능력은 .89, 재창조능력은 .85, 통솔력은 .88, 인간관계능력은 .81, 목적의식은 .84로 전체는 .85로 나타났다.

Table 3. The composition of measure of leadership

Sub-areas	Question numbers	Questions	Credibility
The ability to attain goals	1,2,3,4,5,6,7,8,9, 10	10	.89
Reinvention ability	11,12,13,14,15,16, 17,18,19,20	10	.85
Command	21,22,23,24,25,26, 27,28,29,30	10	.88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ability	31,32,33,34,35,36, 37,38,39,40	10	.81
Sense of purpose	41,42,43,44,45,46, 47*,48*,49*,50	10	.84
Total		50	.85

*Inversion questions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본 연구자가 직접방문을 통하여 설문지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응답자가 설문내용에 대하여 자기평가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3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성실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분석 가능한 설문지 330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사례별로 코딩 후 SPSS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문제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 수준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Table 4.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itive psychology of would-be child teacher & their leadership scores

(N=330)			
	Sub-variables	M	SD
Positive psychology	Feeling of hope	3.52	.70
	A propensity toward optimism	2.75	.55
	A propensity toward being thankful	2.39	.47
	Passion	3.13	.61
	Total	2.93	.59
Leadership	The ability to attain goals	3.82	.76
	Reinvention ability	4.22	.84
	Command	3.51	.70
	The ability of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3.94	.78
	Sense of purpose	4.16	.83
Total	3.93	.78	

긍정심리 전체는(M=2.93, SD=.59). 하위영역에서는 특성희망(M=3.52, SD=.70), 성향적 낙관주의(M=2.75, SD=.55), 감사성향(M=2.39, SD=.47), 열정(M=3.13, SD=.61)으로 나타났고, 리더십 전체는(M=3.93, SD=.78). 하위영역에서는 목표달성능력(M=3.82, SD=.76), 재창조능력(M=4.22, SD=.84), 통솔력(M=3.51, SD=.70), 인간관계능력(M=3.94, SD=.78), 목적의식(M=4.16, SD=.83)으로 나타났다.

2.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과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긍정심리 총점 및 긍정심리 하위변인 그리고 리더십의 총점 및 하위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전체 긍정심리와 전체 리더십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긍정심리는 전체 리더십($r=.692, p<.01$)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 하위영역인 특성희망, 성향적 낙관주의, 감사성향, 열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목표달성의식,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특성희망’은 전체 리더십($r=.617, p<.01$)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 능력($r=.258, p<.01$), 재창조 능력($r=.599, p<.01$), 통솔력($r=.309, p<.01$), 인간관계 능력($r=.535, p<.01$), 목적의식($r=.626, p<.01$)과도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특성희망’의 수준이 높을 수록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리더십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성향적 낙관주의’는 전체 리더십($r=.567, p<.01$)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 능력($r=.370, p<.01$), 재창조 능력($r=.611, p<.01$), 통솔력($r=.136, p<.01$), 인간관계 능력($r=.397, p<.01$), 목적의식($r=.734, p<.01$)과도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성향적 낙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리더십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감사성향’은

Table 5. Correlation of would-be child teachers' positive psychology and leadership

(N=330)						
Variables	The ability to attain goals	The ability to reinvent	Command	The ability of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A sense of purpose	Total
Feeling of hope	.258**	.599**	.309**	.535**	.626**	.617**
A propensity toward optimism	.370**	.611**	.136**	.397**	.734**	.567**
A propensity toward being thankful	.066**	.452**	.058**	.497**	.437**	.383**
Passion	.224**	.608**	.350**	.737**	.578**	.667**
Total	.279**	.695**	.280**	.672**	.721**	.692**

** $p<.01$

전체 리더십($r=.383, p<.01$)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 능력($r=.066, p<.01$), 재창조 능력($r=.452, p<.01$), 통솔력($r=.058, p<.01$), 인간관계 능력($r=.497, p<.01$), 목적의식($r=.437, p<.01$)과도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감사성향’ 수준이 높을 수록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리더십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열정’은 전체 리더십($r=.667, p<.01$)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 능력($r=.224, p<.01$), 재창조 능력($r=.608, p<.01$), 통솔력($r=.350, p<.01$), 인간관계 능력($r=.737, p<.01$), 목적의식($r=.578, p<.01$)과도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영역인 ‘열정’ 수준이 높을 수록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리더십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3.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래와 같으며 ($F=62.81, p<.001$), 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인간관계능력($\beta=.489, p<.001$), 목적의식($\beta=.428, p<.001$), 재창조능력($\beta=.257, p<.001$), 통솔력($\beta=.190, p<.001$), 목표달성능력($\beta=.083,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는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와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에서

Table 6. The effects of would-be child teacher's positive psychology on leadership

		(N=330)				
Variables		B	Beta	t	R ²	F
Positive psychology	(Constant)	2.14		4.62***		
	The ability to attain goals	-.232	.083	-2.53**	.05	12.178**
	(Constant)	1.19		18.45***		
	Reinvention ability	.568	.257	6.72***	.27	65.56***
	(Constant)	1.75		20.31***		
	Command	-.286	.190	-5.36***	.22	53.42***
	(Constant)	2.05		15.43***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ability	1.179	.489	11.52***	.14	35.18***
	(Constant)	1.33		18.73***		
	Sense of purpose	1.181	.428	14.11***	.26	52.66***
(Constant)	1.86		7.93***			
Total	.411	.692	17.34***	.32	62.81***	

** $p<.01$, *** $p<.001$

는 특성희망, 열정, 성향적 낙관주의, 그리고 감사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리더십에서는 재창조 능력, 목적의식, 인간관계 능력, 목표달성 능력, 그리고 통솔력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심리와 리더십은 모든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 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특성희망에서 리더십 각 하위변인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특성희망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리더십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열정에서도 리더십의 각 하위 변인인 재창조능력, 목적의식, 인간관계능력, 목표달성능력, 통솔력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리더십과도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열정이 증가할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리더십 수준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성향적 낙관주의에서도 리더십의 각 하위변인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성향적 낙관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리더십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감사성향에서도 리더십의 각 하위 변인인 재창조능력, 목적의식, 인간관계능력, 목표달성능력, 통솔력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감사성향이 증가할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리더십 수준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의 하위변인인 특성희망, 열정, 성향적 낙관주의, 감사성향이 증가할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리더십 수준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에 관한 핵심자원으로 자기효능감과 낙관성, 자아존중감, 목표설정등 공통적인 특성으로 정리하였는데 사람들은 평소에 긍정적 요소를 획득, 유지, 보호, 육성하려고 노력하여 이를 통해 스트레스 사건에 덜 직면하

게 되고, 직면을 하더라도 긍정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긍정적 자원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견고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 보다 풍성한 자원을 가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Hobfoll(2002)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는 리더십 하위변인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긍정심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 하위변인은 인간관계 능력이며, 그 다음으로 목적의식, 재창조능력, 통솔력, 목표달성능력 순이었다. 인간관계 능력은 타인을 진실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나와 타인과 조직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하게 하는 기술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비유아교사는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 능력을 조직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일이나 판단력은 조직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Um(2007)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유아교사 자신이 분명한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조직을 이끌어갈 방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다가서야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영역에서 인간관계 능력인데 이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과 호의를 베풀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와 조직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생기술로 리더에게 있어 조직 구성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Um(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으로써, 하나의 특정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심리 주제 자체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특정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이 해의 측면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뿐 아니라 교육학, 상담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였다(Go 2010). 긍정심리는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더 빈번한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을 영향을 준다(Fredrickson 2003).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일과 직업에 대한 성취동기와 만족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유아교사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나아가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교사 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인간 본성의 보다 긍정적인 성향과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조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긍정심리와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Cha KH(2004)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eenagers Research 11(3), 322-324.

Choi SO, Jung HU, Kang IG, Park BG(2003) Leadership diagnostic tools. Research report, RR- 2003-15-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Csikszentmihalyi M, Seligman MEP(2000) Positive Psychology. J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5(1), 5-14.

Fredrickson BL(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 Review General Psychology 2, 300-319.

Go YM(2010) The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counseling program based positive psychology on children's happiness and depres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Go YM, Kim GS(2011) The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counseling program based positive psychology on children's happiness and depression. J Elementary Education 22(3), 129-152.

Hagger H, Malmberg L-E(2011) Pre-service teacher's goals and future-time extension, concerns, and well-being. Teaching & Teacher Education 27 (3), 598-608.

Hobfoll SE(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Jung DS(2002) The psychology of happiness. J Christian Counseling 4, 232-265.

Jo MS(2010) Write past the positive impact of self-esteem research.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Kim HJ(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positive psychology and school lif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Kim HJ(2012) Attitud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positive psychology and parenting style, learning involvement, academic achievement relationship.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Kim YK(2009)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of leadership,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creative problem solving program.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Lunenburg FC, Ornstein AC(2000)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dsworth.

Lee HS(2008) Positive psychology of humanities: sigma press, Seoul.

Lee SH(2011) The elementary school gifted children and the child's general 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analy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Macleod A. K(2000) Positive thinking revisited: positive cognitions, well-being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1), 1-10.

Nam IS(2007) Reported on euphoria development. Korea J Social Theory 31, 217-248.

Seligman, MEP(2009) Martin Seligman positive psychology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Kim In Ja. Anyang: Mulpure.

Woo MS(2010) Research on positive psychological impact on the type of leadership. 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Um WY(2007)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program for improving research and development.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